

남녀 아동 및 성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표상*

정 태 연[†] 류 원 정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과 성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평가자의 유형 및 평가대상자의 성에 따라 다른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성인 249명(남: 96명, 여: 153명), 교사 162명(남: 40명, 여: 122명) 그리고 대학생 265명(남: 123명, 여: 142명)이 아동 및 성인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된 개방형 질문에 응답하였다. 분석 결과, 아이다운 아이는 주로 외향성과 호감성 등의 성격적 특성 및 신체적 특성으로 결정되었으며, 어른다운 어른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도 호감성과 성실성의 성격특성 그리고 과업적 특성과 관련되었다. 또한, 이러한 반응에는 성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남녀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바람직한 아이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등의 성격특성과 신체적 특성으로, 바람직한 어른은 호감성, 성실성 등 성격특성과 관계적 특성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남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국인의 행복은 아이와 어른 및 남녀에 전혀 상관없이 경제적 환경, 세속적 성공, 가족 및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남녀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는 평가자 유형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한국의 사회 및 문화적 특성 그리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아동, 성인, 사회적 표상, 성역할 고정관념, 성격특성, 과업적 특성, 관계적 특성

* 이 논문은 2003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 : 정태연, (156-756) 서울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tjung@cau.ac.kr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아동에 대한 해석과 평가 및 기대와 요구도 변화해 왔다는 점에서 특정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개념은 그 사회의 역사·문화적 산물로 보인다. 말하자면, 아동에 대한 개념은 한 사회의 여러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사회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람들이 아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나 한국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아동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은 크게 교육과 양육에 집중해 있다. 아동의 교육과 관련한 관심은 궁극적으로는 인격형성보다는 학벌지향적인 성격이 더 강하고, 양육과 관련한 관심은 주로 가족주의적인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이 아동에 대해 가지는 이러한 관심의 본질 혹은 근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유도하거나 만든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태연, 최상진과 김효창(2002)은 아동과 어른에 대한 한국대학생의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본 연구는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대학생, 부모 및 교사들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인과 대조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사회적 표상과 아동에 대한 서양 및 한국사회의 개념들을 살펴보고, 성 고정관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표상에 대한 개념을 살펴본 후(자세한 내용은 Moscovici, 1981; 정태연 등, 2002; 최상진, 1998 참조), 아동에 대한 동서양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정태연 등, 2002 참조). 사회적 표상은 대인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타나

는 개념체계, 진술체계 그리고 설명체계로서, 그것들은 일상생활과정에서 생성되며, 세계에 대한 의견, 이미지 또는 태도와 같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론체계 또는 지식체계로서, 현실의 발견이나 조직화를 위해 사용되는 독립된 체계이다(Moscovici, 1981). 즉, 사회적 표상은 가치체계, 아이디어체계 그리고 행위로의 실천체계를 총체적으로 지칭한다.

사회적 표상과 자극 간에는 순환적인 관계가 있어서, 사회적 표상은 기본적으로 자극에 근거하여 형성되지만, 일단 형성된 사회적 표상은 그 자극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회적 표상은 단순한 설명 개념이 아닌 설명되어야 할 현상이다. 사회적 표상은 특정 개념을 특정 자극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표상의 내용은 그 자극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표상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정체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동심리학의 최근 연구들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관련된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시 아동이나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인지 즉, 아동을 능동적 존재로 인식하거나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예로, Goodnow, 1985, 1988; Nimio, 1979; Sigel, McGillicuddy De Lisi & Johnson, 1980). 한국연구에서도 아동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예로, 이희선, 1995; 전경숙, 1992, 1996).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아동의 행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아동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문화적으로 보편적이기보다는 특수한 현상

임을 시사해 준다. 예를 들면, 서양의 경우 중세에는 아동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 아동은 단지 어른의 축소판이었으며(Aries, 1962), 아동은 어른과 다른 독특한 존재가 아니었다(김정운, 2000; 조형근, 1999). 그 후,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아동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조형근, 1999), 17세기 들어오면서 아동에 대한 관념이 무절제에서 순진무구로 변화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서양식 아동관은, UN이 1989년에 공포한 아동권리협약 속에 상징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아동을 보호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 주체적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다(안동현, 1997; Franklin, 1986).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상들 특히, 불교와 유교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예로, 김향은, 1995; 문미옥과 류철선, 2000; 백경임, 1980; 신양재, 1995), 서양과는 달리 한국사람들은 아동을 독립적인 존재로서보다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해하여, 아동의 의미를 그들의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한국사회는 아동을 일종의 순수한 존재로 개념화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교육, 특히 가정교육을 중시하였다. 교육은 인간의 도리를 강조하여 기존의 사회가 설정해 놓은 이상적인 성인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지, 새롭고 창의적이며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은 아니다. 결국, 불초소생 불효자식의 글귀에서처럼, 교육의 목적은 아동을 바람직한 성인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와 관련된 두 연구(김태오, 2000; 손병환, 1978)에서 나타난 아동관은 몇몇 측면에서 전통적인 아동관과는 상당히 다른 반면, 서구적인 아동관과 일치하는 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에, 정태연 등(2002)은 개방형 질문을 이용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아동과 어른에 대한

한국대학생의 사회적 표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른과 대비되는 아이의 특성은 대부분 성격적인 측면과 관련되었으며, 특히 아이는 어른에 비해 외향성이 높은 반면, 호감성, 성실성 및 교양에서의 수준은 낮았다. 또한, 아이와 어른 모두 그들의 행복과 불행은 거의 대부분 대인관계적 특성과 건강, 가정의 경제적 환경이나 사회적 성취수준에 의해 결정되었다. 반면, 좋은 아이는 성격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나 독립성 등 높은 호감성과 성실성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특성은 아이다운 아이의 특성보다는 어른다운 어른의 특성과 매우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어른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서 한국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구조를 잘 보여준다. 즉, 어른과는 달리 아이의 경우, 아이다운 아이와 바람직한 아이에 대한 판단체계가 동일하지 않았다. 또한, 행복한 아이나 어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아이나 어른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즉, 사회적 바람직성과 개인의 행복과는 거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정태연 등(2002)의 연구는 몇몇 측면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대학생만을 실험참가자로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동의 교육이나 양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사나 부모가 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사회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 사회적 표상의 중요성은 직접적인 대인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 차원에 근거한다고 볼 때, 아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사나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교사의 아동에 대한 인식은 그들의 교육목적이나 교육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부모의 아동에 대한 인식 역시 양육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교사

와 부모가 아동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은 아동의 사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인에 대한 평가를 그들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하는 현실에서, 정태연 등(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표상에서 아동과 성인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했다. 성별에 따른 사회적 표상은 남녀에 따른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과 관련될 수 있고, 성 혹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형성하여 남녀에 대한 왜곡된 지각이나 평가 및 차별을 야기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동과 성인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표상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든 문화는 남녀에게 적합한 작업과제, 활동, 그리고 성격특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런 규정은 문화에 따라 다르지만(Mussen et al., 1979), 대다수의 사회는 남자 위주로 조직화되어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공격적이고 지배적이며,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일을 수행하는 반면, 여성은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일이나 가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성역할은 Parsons(1955)가 기술한 남편-아버지의 도구적 역할 그리고 아내-어머니의 표현적 역할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성에 따른 서로 다른 역할의 수행이나 기대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회는 성역할 고정관념 혹은 성고정관념을 발전시키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기도 하며, 자신의 자아개념과 성역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성적 고정관념은 도구적인 것 또는 능력적 범주로, 여성적 고정관념은 온정적이고 표현적인 범주로 분류된다. 예컨대 지배적, 독립적, 경쟁적, 지적, 건장함, 자신감, 공격적, 결단적, 논리적인 특성은

남성을 묘사하며, 복종적, 의존적, 정서적, 흥분적, 온정적, 동정적 등의 특성은 여성을 묘사하는 것이다(방희정, 1996; Broverman et al., 1972; Spence & Helmreich, 1974).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성역할 혹은 성별 특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상당히 어린 시기에 발달함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아동은 취학 전에 성고정관념을 학습하며, 초등학교 1-2학년 사이에 한 경험들이 이러한 고정관념을 강화했으며, 남자와 여자는 비슷한 양상으로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Williams et al., 1975). 한국의 8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고정관념을 살펴본 한 연구(Lee & Sugawara, 1982)에서, 한국의 8세 아동들은 미국의 8세 아동들과 비슷한 성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남자가 여아보다 남성의 성고정관념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 여아는 양성의 성고정관념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회는 평가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표상 혹은 인식을 발달시키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표상이 다양한 맥락에서 아동과 어른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대학생,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알아보려 했다. 즉, 개방적 질문을 통해 이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측면, 행복한 측면, 아이나 어른다운 측면 등에서 아동과 어른의 특성을 남녀에 따라 기술하게 하여, 한국인들이 아동에 어른에 대해서 가지는 사회적 인식을 검증해 보았다.

방 법

참가자

본 연구에서는 2개의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설문지 1에는 성인 127명(남: 51명, 여: 76명),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96명(남: 21명, 여: 75명) 그리고 대학생 134명(남: 63, 여: 71명)이 참가하였다. 성인의 평균나이는 43세, 교사의 평균나이는 37.2세 그리고 학생의 평균나이는 21.9세이었다. 설문지 2에서는 성인 122명(남: 45명, 여: 77명),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사 66명(남: 19명, 여: 47명) 그리고 학생 131명(남: 60명, 여: 71명)이 참가하였다. 설문지 2에 참가한 성인들의 평균연령은 43.0세, 교사의 평균연령은 35.7세 그리고 학생의 평균연령은 21.4세이었다.

측정도구와 절차

2개의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naire)를 이용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설문지 1의 설문문항은 남자다운 아이, 여자다운 아이, 남자다운 어른, 여자다운 어른 특징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지 2는 행복한 남자아이, 행복한 여자아이, 행복한 남자어른, 행복한 여자어른, 바람직한 남자아이, 바람직한 여자아이, 바람직한 남자어른, 바람직한 여자어른 특징 등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다운, 바람직한, 그리고 행복한 등의 차원을 선정한 이유는 이러한 차원이 개인적 및 사회적 수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행복은 대부분 개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바람직성은 주어진 사회가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기준 혹은 그들을 사회화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반영하며, ~다운 차원 역시 사회적 판단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모든 질문에서 각 참가자들이 기술할 수 있는 특성의 수는 10개로 제한하였다. 또한 아이나 어른과 관련된 특성들은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측면 등 모든 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성인과 대학생에 대한 자료는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학기 초에 수강하는 학생들을 몇 개의 조로 편성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 기말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 때 수집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교사에 대한 자료는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특정 교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교사에게 설문지를 전달한 다음 자료 수집을 요청하였다.

분석

개방형 질문지로 얻은 자료의 분석은 참가자들이 반응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두 명의 본 연구자들이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전에 반응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분석차원 및 각 차원에 해당하는 반응을 정했다. 그 다음, 한 연구자가 먼저 분석한 후, 이것을 다른 연구자가 재검토하였으며,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성격특성과 관련된 내용은 Goldberg(1990)의 Big Five 분류체계인 외향성(extroversion), 호감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안정성(emotional stability)과 교양(culture)을 참조하여 5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또한, 아이와 어른의 신체 및 외모와 관련된 내용은 신체적 특성으로, 직업·학업 등의 성취와 관련된 반응은 과업적 특성으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은 관계적 특성으로, 자신의 내면적 주관, 신념 등과 관련된 반응은 자아 특성으로, 주변상황과 관련된 내용은 환경적 특성으로, 취미나 기호 등은 기호특성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특성으로 분류하였다. 문항 별로 참가자들의 유형(성인, 교사, 학생)에 따라 분석이 이루어졌다.

결 과

먼저, 성별에 따른 아이다운 아이의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남자다운 아이에 관한 전체 반응의 70% 정도가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외향성과 호감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남자다운 아이는 매우 외향적이고 호감성이 높았다. ‘싸우는’, ‘고집부리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전형적인 혹은 바람직한 남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형용사들로 묘사되었다. 또한, 신체특성도 남자다운 아이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서, 참가자들이 기술한 내용은 전형적인 남자들의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 된 것이었다. 이 외에 기호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다.

표 1. 아이다운 아이의 특성들 (숫자의 단위는 %)

차원	반 응 내 용	성인	교사	대학생
남자다운 아이의 특성들				
외향성	활발한, 장난심한, 용감한, 적극적, 주도적, 과묵한	32.4	31.2	29.5
호감성	싸우기, 약자보호, 의리, 포용, 울지 않기, 고집, 인내	26.5	26.2	20.3
성실성	솔선, 스스로 하는, 지저분한, 동생 잘 보는, 의젓한.	10.0	5.2	5.9
정서안정성	산만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9	4.5	3.9
교양	호기심, 단순한, 영리한	3.1	5.4	2.6
신체특성	운동 좋아하는, 큰 목소리와 체격, 건강한, 힘센	14.0	16.3	17.0
과업특성	꿈이 큰, 공부 잘하는	.9	1.7	.4
관계특성	친구들과 잘 노는	2.7	0.0	4.3
기호특성	(충, 로봇)장난감, 게임, 만화 좋아하는	10.4	5.4	8.4
여자다운 아이의 특성들				
외향성	조용, 얌전, 겁 많음, 수줍음, 수다, 여린. 새침때기	20.1	15.5	17.3
호감성	조신, 예의, 배려, 착한, 애교, 상냥, 솔직, 순종적	20.9	28.6	17.5
성실성	정리정돈, 깔끔, 단정, 꼼꼼, 동생 잘 보기, 엄마 돕기	13.3	18.5	6.0
정서안정성	빼치기, 감수성 풍부, 감정표현, 차분, 예민, 샘내기	11.4	6.6	12.5
교양	호기심, 상상력, 엄마 따라하기	2.8	2.4	1.1
신체특성	꾸미기, 외모관심, 예쁜, 귀여운, 목소리 작은, 가냘픈	12.2	13.6	12.6
과업특성	손재주, 꿈 많은, 예술적 능력	1.3	.9	1.3
관계특성	친구 많은, 엄마를 좋아하는	2.7	.9	9.3
기호특성	인형, 치마 선호, 예쁜 물건, 화장품, 가사 관심	17.2	11.5	19.9

주. 남자아이다운 아이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583개, 교사 424개, 대학생 701개. 여자아이다운 아이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576개, 교사 426개, 대학생 538개.

표 1에서 보듯이, 여자다운 아이의 경우에도 성격적인 특성이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남자다운 아이의 경우처럼, 외향성과 호감성에 대한 빈도가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성과 정서안정성 차원이 남자아이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조되었다. 여자다운 아이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기술된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여성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혹은 기대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내향적이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등 관계지향적인 특성 그리고 '꼼꼼하고' '조직화된' 일처리와 약간은 정서적인 성향이 여자다운 아이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남자다운 아이의 경우처럼, 신체적인 특성과 기호특성도 여자다운 아이를 규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정반대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아이다운 아이는 거의 전적으로 신체적인 특징과 성격 및 기호적인 특징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아이다운 아이를 평가하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가 기존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표 1에서 보듯이, 이러한 인식에서 참가자들의 유형 즉, 성인, 교사, 대학생 집단 간에 특별히 두드러진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대학생이 성실성을 좀 더 강조하고 관계적인 측면은 좀 더 강조하는 약한 경향성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녀에 따른 아이다운 아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상당히 보편적이었다.

성별에 따른 어른다운 어른의 특성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남자다운 어른에 대한 전체 반응의 약 70%가 성격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성격 특성 중에서도 외향성, 호감성 및 성실성에 집중되어 있었고, 특히 호감성에 대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 결국, 참가자들

은 남자다운 어른의 외향성 측면에서 '지도력'과 '추진력' 등 일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였으며, 호감성 측면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포용' 및 '인내심', 그리고 성실성 측면에서는 '책임감'과 '솔선수범' 등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 참가자들은 신체적인 특성과 과업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는데, 남자다운 어른은 신체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과업적으로 능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다.

표 2에서 보듯이, 여자다운 어른에 대한 반응의 70% 정도가 성격특성과 관련되었으며, 호감성과 성실성 특히, 호감성에 대한 반응비율이 매우 높았다. 전반적으로 한국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자다운 어른은 '자상함'과 '배려심' 등 타인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며 '꼼꼼하고' '가정적이며' '현신적' 등 가족지향적인 특성이 강한 사람이었다. 뿐만 아니라, 과업적인 측면에서도 '가사', '내조', '자녀양육' 등 가족중심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외에 신체적인 측면에서 여성다운 어른의 특성은 '꾸미고', '예쁘고', '작고' 등 전형적인 혹은 바람직한 여성에 대한 특성과 유사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남자다운 어른과 여자다운 어른을 규정하는 차원은 남자다운 어른의 경우에 외향성이 좀 더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매우 상반적이어서, 남자다운 어른과 여자다운 어른의 특성은 전형적인 고정관념(예로, 방희정, 1996; Broverman et al., 1972; Spence & Helmreich, 1974)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참가자의 유형들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대학생들이 여자다운 어른을 규정하는데 성실성과 신체적 특성을 더 강조한 반면, 과업적인 특성을 덜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이

표 2. 어른다운 어른의 특성들

(숫자의 단위는 %)

차원	반 응 내 용	성인	교사	대학생
남자다운 어른의 특성들				
외향성	지도력, 대범, 용기, 과묵, 추진력, 진취적, 자신감	11.0	16.3	13.3
호감성	정의심, 이해심, 배려, 포용, 자상, 의리, 신뢰, 인내	32.5	39.0	32.1
성실성	책임감, 신중, 솔선수범, 가정충실, 성실, 법 준수	20.4	14.4	16.1
정서안정성	감정조절력, 여유	2.4	1.4	1.4
교양	생각 깊은, 이성적, 판단력, 지적	4.3	5.0	6.1
신체특성	힘센, 운동 잘하는, 멋있는, 건강한	8.0	4.5	11.3
과업특성	경제력과 능력, 일에 전념, 비전 있는, 미래 설계하는	12.9	9.2	9.9
관계특성	대인관계 원만, 가족사랑	3.8	3.1	.9
자아특성	뚜렷한 주관, 독립심	4.4	2.8	7.4
여자다운 어른의 특성들				
외향성	섬세한, 차분한, 조용한, 자신감	3.8	3.2	3.6
호감성	자상, 포용, 배려, 이해, 센스, 순수, 인자, 상냥, 예의	43.2	47.5	30.1
성실성	꼼꼼, 검소, 책임감, 가정충실, 성실, 깔끔, 헌신적	10.7	11.3	20.9
정서안정성	차분한, 감성풍부, 감정조절	3.7	3.5	8.1
교양	교양, 현명한, 지혜로운, 이성적, 지적인	6.1	4.6	7.3
신체특성	잘 꾸미는, 예쁜, 여성스런 외모, 날씬, 목소리 고운	4.5	4.0	11.6
과업특성	가정충실, 살림과 내조, 요리, 자식양육, 전문능력	18.8	15.0	8.2
관계특성	가족사랑과 우애, 가족으로부터 존경, 대인관계 원만	5.2	3.2	2.5
자아특성	뚜렷한 주관, 독립심, 자기개발, 자기관리	2.8	3.2	4.9

주. 남자다운 어른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580개, 교사 423개, 대학생 720개. 여자다운 어른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598개, 교사 373개, 대학생 671개.

다운 아이와 어른다운 어른을 비교해 볼 때, 아이의 경우 상대적으로 외향성을 더 강조한 반면, 어른의 경우 과업적 특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외향성과 호감성, 성실성 및 신체적 특성 등 주요 차원의 내용면에서는 거의 비슷했다.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아이의 특성이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바람직한 남자아이의 특성 중에서 약 65% 정도가 성격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외향성, 호감성 및 성실성 특히, 호감성에 대한 반응이 많았다. ‘적극적’이고 ‘자신감’과 ‘활발함’을 갖춘 외향적인 특성, ‘순종적’이면서 ‘배려’와 ‘의리’ 및 ‘인내심’을 갖춘 호감성 그리고 ‘책임감’과 ‘노력’ 및 ‘의지

표 3. 바람직한 아이의 특성들

(숫자의 단위는 %)

차원	반응 내용	성인	교사	대학생
바람직한 남자아이의 특성들				
외향성	씩씩, 지도력, 활발, 긍정적, 잘 노는, 적극적, 자신감	12.1	14.1	21.6
호감성	말 잘 듣는, 정직, 예의, 배려, 의리, 참을성	37.8	33.9	30.7
성실성	책임감, 노력, 성실, 의지력, 질서의식, 검소	11.7	8.0	9.1
정서안정성	싸우지 않는, 침착한	3.1	3.7	2.8
교양	호기심, 판단력, 똑똑, 독서	2.9	4.6	5.2
신체특성	건강한, 운동 잘하는, 잘 먹는	14.1	12.2	13.2
과업특성	공부 잘하는, 꿈이 있는	6.3	4.6	5.0
관계특성	원만한 친구관계, 가족우애, 인기	8.9	10.1	8.8
자아특성	뚜렷한 주관, 자신사랑	1.8	4.3	1.4
바람직한 여자아이의 특성들				
외향성	긍정적, 얌전, 적극적, 명랑, 활발, 밝은, 자신감	6.8	12.7	8.9
호감성	말 잘 듣는, 예의, 배려, 순수, 착한, 정직, 조신, 상냥	43.6	41.8	48.2
성실성	스스로 하기, 성실, 노력, 깔끔, 책임감, 정리정돈	14.2	10.0	9.9
정서안정성	감정표현, 감수성풍부	3.3	2.7	.0
교양	독서, 호기심, 창의적	1.9	6.0	4.0
신체특성	건강, 잘 먹고 잘 자는, 예쁜, 귀여운	12.4	7.7	11.0
과업특성	공부 잘하는, 꿈이 있는, 특기와 재주 있는	6.2	5.4	3.6
관계특성	원만한 친구관계, 가족우애, 주변사람들의 사랑	9.2	8.0	11.0
자아특성	뚜렷한 주관, 자립심	1.5	2.3	2.1

주. 바람직한 남자아이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674개, 교사 327개, 대학생 639개. 바람직한 여자아이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615개, 교사 299개, 대학생 620개.

력'을 강조하는 성실성이 바람직한 남자아이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신체적으로는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며', 친구와 가족 간의 '원만한 관계'도 바람직한 남자아이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 드러났다.

표 3에서 보듯이, 바람직한 여자아이의 특성 중에서 약 70%가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호감성에 대한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성실성과 외향성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있었다. 외향성 차원에서 '얌전'과 같은 내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명랑', '활발', '긍정' 및 '자신감' 등 외향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남자아이에 대한 반응과 상당히 유사한 결과이다. 호감성 차원에 대한 반응도 같은 경우

인데, ‘조신’, ‘상냥’ 등 여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점도 있지만, 순종적이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예의’ 등의 측면은 바람직한 남자아이의 특성과 일치한다. 신체적인 측면에서 ‘예쁘고 귀여운’ 점 이외에도 남자아이와 마찬가지로 건강을

강조하는 측면도 강하게 있었다. 또한, 공부 등 과업적인 측면과 친구와 가족 간의 원만한 대인관계도 바람직한 여자아이를 규정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남녀아이에 대한 반응에서 참가자

표 4. 바람직한 어른의 특성들 (숫자의 단위는 %)

차원	반 응 내 용	성인	교사	대학생
바람직한 남자어른의 특성들				
외향성	긍정적, 리더십, 자신감, 활동적	3.5	7.9	6.0
호감성	배려, 이타, 이해심, 포용, 정직, 어른공경, 친절, 정의	39.8	32.9	37.0
성실성	책임감, 성실, 가정충실, 준법, 모범, 건전, 최선	23.6	21.3	20.9
정서안정성	여유, 차분	1.2	.0	.5
교양	지적인, 지혜로운, 이성적, 판단력	1.8	.0	5.0
신체특성	건강, 잘생긴, 잘 먹는	4.3	5.0	3.1
과업특성	경제력, 능력, 자녀양육	9.9	6.7	12.2
관계특성	많은 친구, 원만한 대인관계, 가족사랑, 주위의 존경	12.6	13.8	8.3
자아특성	뚜렷한 주관, 자기관리, 독립심	3.3	6.7	1.9
기호특성	술 담배 절제, 취미생활	3.1	5.8	3.5
바람직한 여자어른의 특성들				
외향성	긍정적, 자신감, 조용, 진취적	4.2	4.5	5.6
호감성	배려, 이해심, 친절, 예의, 정숙, 효도, 이타심, 봉사	31.6	54.9	31.8
성실성	책임감, 가정충실, 노력, 검소, 알뜰, 내조, 법 준수	26.2	15.9	20.2
정서안정성	여유, 감성풍부	.6	.0	2.5
교양	지적인, 지혜	1.3	.0	8.4
신체특성	건강한, 예쁜, 아름다운, 꾸미는	5.8	4.9	4.1
과업특성	직업, 능력, 가사, 경제력, 자녀양육	9.1	1.2	12.4
관계특성	가족사랑, 원만한 대인관계, 이웃사랑, 화목한 가정	11.8	10.6	7.8
자아특성	뚜렷한 주관, 자기관리, 자기사랑, 독립적	2.4	5.3	6.0
기호특성	취미, 신앙, 술과 담배 절제	3.8	2.9	.3

주. 바람직한 남자어른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605개, 교사 240개, 대학생 737개. 바람직한 여자어른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548개, 교사 246개, 대학생 679개.

유형들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나 성인 및 대학생들이 남녀 아이의 바람직 성 측면에서 서로 매우 유사한 사회적 표상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뿐만 아니라, 아이다운 아이나 어른다운 어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바람직한 아이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대신 남녀 간에 공통적인 특성들이 많았다. 그런데 표 1의 아이다운 아이와 표 2의 어른다운 어른에 대한 반응내용을 고려해 볼 때, 많은 경우 바람직한 여자아이가 남성적인 특성을 가짐으로써, 즉 바람직한 여자아이를 남성적인 시각에서 규정함으로써 바람직한 남녀의 특성 간에 공통점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성별에 따른 바람직한 어른의 특성이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바람직한 남자어른 특성 중에서 약 65%정도가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반응은 호감성과 성실성 두 요인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와 포용 등 타인지향적인 성격과 책임감과 최선, 모범 등 과업에서의 성실성이 바람직한 남자어른의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업적이고 관계적인 측면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취능력과 원만한 대인관계도 남자어른의 바람직성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표 4에서 보듯이, 바람직한 여자어른의 경우에도 전체 반응의 약 65%정도에 해당되는 성격적 특성에 대한 반응은 호감성과 성실성 두 요인에 거의 모두 집중되어 있었다. 내용적으로 볼 때, ‘정숙’, ‘알뜰’, ‘검소’, ‘내조’ 등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여성상에 해당되는 반응도 있었지만, 나머지 많은 부분은 바람직한 남자어른에 대한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등 타인중심

적인 특성과 ‘책임감’, ‘가정충실’, ‘노력’ 등의 특성이 두드러졌다. 과업 및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남자와 유사하여 성취적인 능력과 원만한 대인관계가 중요했다. 신체적인 측면에서는 여성적인 외모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바람직한 남녀어른에 대한 반응에서 참가자 유형들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바람직한 여자어른의 경우에 교사들은 성인이나 대학생에 비해 호감성을 더 강조했고 성실성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아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표 2의 어른다운 어른과 비교해 볼 때 바람직한 어른의 남녀 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적은 대신 공통점이 더 많았다. 또한, 과업적인 특성과 자아특성을 제외하고, 성격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공통점들이 어느 쪽 성의 특성을 지배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성별에 따른 행복한 아이의 특성이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행복한 남자아이의 특성 중 전체 반응의 20-30% 정도가 성격특성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 중 외향성과 호감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잘 놀고’, ‘활발하고’, ‘씩씩하며’ ‘착하고’ ‘말 잘 듣는’ 남자아이가 행복한 아이였다. 또한, 전체 반응의 60-70% 정도가 신체특성, 환경특성 및 관계특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건강하고, 남성적 외모를 가졌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가족 및 친구들과 대인관계가 좋은 아이가 행복한 아이였다.

표 5에서 보듯이, 행복한 여자아이에 대한 반응도 이와 유사했다. 전체 반응 중에서 25% 전후가 성격에 관한 것으로, ‘잘 놀고’ ‘명랑하며’ ‘착하고’ ‘잘 웃는’ 아이가 행복한 여자아이이었다. 성격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차원 모두 행복한 여자아이를 결정하는데 나름대로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신체적, 환경적 및 관계적 특성

표 5. 행복한 아이의 특성들

(숫자의 단위는 %)

차원	반 응 내 용	성인	교사	대학생
행복한 남자아이의 특성들				
외향성	잘 노는, 씩씩한, 자기표현, 활발, 자신감, 리더쉽	15.2	17.0	12.0
호감성	착한, 말 잘 듣는, 잘 웃는, 예의바른	6.3	3.8	7.5
성실성	책임감, 건전한	3.0	1.4	0.3
정서안정성	걱정 없는, 감정표현, 감성풍부	2.9	4.5	1.1
교양	영리한, 호기심, 독서	3.5	3.1	.9
신체특성	건강, 운동, 잘 생긴, 키 큰, 힘센, 남자다운 외모	21.6	20.4	25.5
환경특성	넉넉한, 풍요와 자유, 화목한 가정	12.4	9.7	12.4
과업특성	공부 잘하는, 능력 있는, 똑똑한	7.9	4.2	6.8
관계특성	많은 친구, 가족사랑, 좋은 부모, 칭찬과 인기	26.1	30.5	31.9
행복한 여자아이의 특성들				
외향성	잘 노는, 명랑, 긍정적, 자기표현, 활발, 당당	5.3	8.2	7.1
호감성	잘 웃는, 착한, 배려, 예의, 온순, 순수, 포용	11.6	9.0	6.7
성실성	깔끔, 단정, 스스로 하는	2.9	4.1	.5
정서안정성	감성풍부, 감정표현, 걱정 없는	.5	6.3	1.3
교양	독서, 똑똑한	.8	2.2	2.2
신체특성	예쁜, 건강, 귀여운, 잘 자는, 잘 먹는	23.0	16.8	22.6
환경특성	경제적 풍요, 화목한 가정, 좋은 부모	16.2	11.9	21.7
과업특성	공부, 특기, 꿈	10.0	7.5	8.0
관계특성	부모사랑, 많은 친구, 칭찬과 인기, 원만한 대인관계	26.3	30.2	28.2

주. 행복한 남자아이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638개, 교사 289개, 대학생 709개. 행복한 여자아이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608개, 교사 268개, 대학생 673개.

이 중요하게 드러났다. 신체적인 특성은 ‘예쁘고’ ‘귀여운’ 등 남성과는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경향이 있지만, 환경과 관계적 측면은 행복한 남자아이의 경우와 동일했다.

이러한 반응은 교사나 성인 및 대학생 등 평가자의 유형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행복한 아이를 결정하는데 신체적인 측면을 제

외하고는 남녀차이가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는 아이다운 아이나 바람직한 아이의 특성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즉, 아이다운 혹은 바람직한 아이는 거의 많은 부분이 성격적인 측면에 의해 결정된 반면, 행복한 아이는 성격보다는 신체나 환경 및 관계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되었다.

성별에 따라 행복한 어른의 특성이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보듯이, 행복한 남자어른을 결정하는데 성격적인 요인은 약 10% 정도로 거의 중요하지 않았다. 대신에 전체 반응의 80%정도가 신체특성, 과업특성 및 관계특성에 집중되어 있었다. 결국, 행복한 남자어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강인하며,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화목한 가정과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이었다.

표 6에서 보듯이, 행복한 여자어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체 반응의 80%정도가 신체특성, 과업특성 및 관계특성과 관련되어 있었다. 행복한 여자어른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예쁘고 젊으며, 과업적으로 사회적 성공뿐 아니라 요리와 내조 등 가족 내에서의 역할수행을 잘 하고, 관계적 측면에서 많은 친구도 중요하지만 특히, 자

표 6. 행복한 어른의 특성들 (숫자의 단위는 %)

차원	반응 내용	성인	교사	대학생
행복한 남자어른의 특성들				
외향성	긍정적, 자신감, 리더쉽	2.2	4.7	2.7
호감성	돕는, 포용력, 예의, 신뢰, 자상	3.7	1.2	3.8
성실성	모범, 솔선수범, 최선	2.3	.0	1.4
정서안정성	여유, 걱정 없는, 감정조절	3.7	1.8	2.2
교양	지적인, 지혜로운	.6	0.6	1.6
신체특성	건강한, 잘 생긴, 힘센, 운동 잘하는	14.3	11.5	11.9
과업특성	경제력, 성공과 인정, 원하는 직업, 능력, 꿈	31.1	35.7	37.2
관계특성	가정화목, 많은 친구, 좋은 자식과 배우자, 좋은 이웃	38.5	33.2	32.6
자아특성	뚜렷한 주관, 독립심	.3	.0	1.2
행복한 여자어른의 특성들				
외향성	사교적, 당당한, 긍정적, 적극적	3.6	2.7	3.7
호감성	봉사, 배려, 잘 웃는, 포용, 착한, 상냥	4.0	3.4	4.0
성실성	노력, 책임감, 검소	1.5	.7	1.4
정서안정성	여유로운, 걱정 없는	2.3	2.0	6.7
교양	지혜, 지적인, 판단력	.8	1.7	2.1
신체특성	건강한, 예쁜, 꾸미는, 젊어 보이는	15.9	14.6	16.1
과업특성	경제력, 직업, 요리, 성공과 인정, 내조, 꿈	20.4	26.4	25.5
관계특성	자식 성공과 효도, 가정화목, 좋은 배우자, 많은 친구	44.1	37.3	34.5
자아특성	뚜렷한 가치관, 독립적, 자신에 만족	2.1	1.7	4.5

주. 행복한 남자아이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638개, 교사 289개, 대학생 709개. 행복한 여자아이의 특성으로 나온 총 반응 수는 성인 608개, 교사 268개, 대학생 673개.

식과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과의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었다.

성별에 따른 행복한 어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평가자 유형들 간에 매우 유사했다. 또한, 행복한 어른에 대한 판단에서 남녀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신체적인 면에서 남자의 경우는 건강과 힘을 강조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건강과 외적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또한, 과업과 관계적인 특성에서 볼 때,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가족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표 5와 6을 비교해 볼 때, 행복의 기준은 아이와 어른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보다 어른들의 경우에 성격적인 측면의 중요성이 더 미약했다.

논 의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아동과 어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그들의 성별에 따라 그리고 평가자의 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 보았다. 분석 결과, 아이다운 아이는 주로 외향성과 호감성 등의 성격적 특성 및 신체적 특성으로 결정되었으며, 어른다운 어른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도 호감성과 성실성 등 성격특성과 과업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반응에서는 성고정관념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남녀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바람직한 아이는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등의 성격특성과 신체적 특성으로, 바람직한 어른은 호감성, 성실성 등 성격특성과 관계적 특성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남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국인의 행복은 아이와 어른 및 남녀에 상관없이 경제적 환경, 세속적 성공, 가족 및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에 의

해 결정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남녀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는 평가자 유형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먼저, 표 1에서 보듯이, 남자다운 및 여자다운 아이에 대한 반응 중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긍정적인 것이었다. 기존의 연구결과(정태연 등, 2002)를 보면, 성별에 대한 구분 없이 중성적으로 제시한 경우, 아이다운 아이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즉, 나쁜 혹은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는 높은 외향성과 낮은 호감성으로 규정되는 바, 시끄럽고 장난이 심한 특성, 떼쓰고 고집부리는 등 자기중심적 특성, 타인을 괴롭히거나 비방하는 공격적 특성, 그리고 예의 없고 말을 잘 듣지 않는 반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아이다운 아이의 특성을 바람직하지 않은 아이의 특성과 비교해 보면, 상당 부분이 서로 일치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남자다운 아이와 여자다운 아이 등 아이다운 아이의 성별을 구체화할 경우, 이 두 유형의 아이들은 표 3의 바람직한 남자아이 및 여자아이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4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어른다운 어른은 바람직한 어른과 매우 동일했다. 뿐만 아니라, 각 성별에 따라 아이다운 아이는 어른다운 어른과 매우 유사했으며, 특히 성격적인 측면에서 비슷했다. 결국, 남녀별로 볼 때, 아이다운 아이, 어른다운 어른, 바람직한 아이 및 바람직한 어른을 규정하는 특성들은 서로 매우 유사해서 각 유형에만 해당되는 독특한 특성이 크게 존재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아동과 어른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유형들을 규정하는 특성들, 가령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며, 타인을 배려하고 말

잘 듣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등과 같은 특성들은 일반적으로 아동보다는 성인들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며 그들에게 요구하는 특성들이다. 즉, 이러한 특성들은 성숙한 성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혹은 특성들이며, 아동이 학습이나 훈련 등 교육을 통해 추구해야 할 목표들이다. 물론, 성별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얻은 아이다운 아이에 대한 결과(정태연 등, 2002)는 한국인들이 아이를 아이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성별 구분이 없는 중성적인 아이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평가결과는 비현실적인 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한국사람들은 아동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동의 입장이나 시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른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날 서구적인 입장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이 UN이 공포한 ‘아동권리협약’이다.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핵심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서구적 가치체계와는 이질적인 전통적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개념은 매우 낯선 것일 수 있다(신우철, 1997).

어른다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다운 아이에 대한 평가에서도 남녀에 따른 성고정관념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일반적인 성고정관념에 따르면(김영희, 1998; 정진경, 1989), 남성은 직업 상황에서 높은 성취를 위해 필수적인 독립성과 지배성 및 통제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권위적이며, 과묵하고, 포용적이며, 감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반면에 여성은 복종적이며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고 타인을 정서적으로 돌보는데 필요한 동정심, 의존성, 언어지향성, 내성적 및 감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성별에 따른 아이를 평가할 경우에도 이러한 고정

관념과 일치하는 다수의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어른다운 어른에 대한 평가는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과 거의 일치했다. 이는 남녀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매우 강력하여 어른뿐만 아니라 아동을 지각할 때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참가자의 유형 즉, 성인, 교사 및 대학생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이 한국사회에 매우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특히, 교사와 성인은 아동의 양육과 교육 등 사회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당사자들로서, 이들은 자신들의 성고정관념을 아동에게 교육함으로써, 성고정관념의 세대 간 전수를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성인의 입장에서 아이다운 아이를 판단하는 점이라든가 남성지배적인 입장에서 여성을 전통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것 등은 아직도 한국사회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Hofstede(1980)의 용어를 빌리면, 한국사회는 여전히 성취 위주의 남성적 사회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아이다운 아이와 어른은 바람직한 아이와 어른과 상당히 비슷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아이나 어른의 경우에 성고정관념이 상대적으로 매우 약해졌다. 그 이유는 여자다운 아이나 어른에 대한 평가내용의 상당 부분이 남성지향적인 내용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적극적, 자신감, 책임감, 직업, 성취, 주관 등 많은 남성적 특성들이 바람직한 여자아이와 여자어른을 규정하는데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사회의 가치체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한 개인의 가치체계는 그 개인이 속한 사회가 추구하는 목적상태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사회는 이러한 목적상태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고와 행동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방해가 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바람직성에 대한 사회적 판단은 결국 각 구성원들의 가치체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Kluckhohn, 1962).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사회는 남녀차별적인 가치보다는 남성적 특성의 발달을 통해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는 서구문화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즉, 권위주의, 남성주의 등 전통적인 가치체계가 업적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 등 서구적 가치체계(임희섭, 1980)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성에 대한 평가에서 남녀차이가 크게 감소한 것은 이러한 평가가 이성적인 사고 수준에서 이루어진 결과일 가능성도 있다. 반면에, 아이다운 아이나 어른다운 어른에 대한 평가는 정서적인 측면에 근거함으로써, 여전히 성고정관념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한국인의 행복과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연구(정태연 등, 2002)결과와 거의 동일했다. 즉, 남녀에 상관없이 아동의 행복은 외향성, 호감성 등의 성격, 신체적, 관계적 및 환경적이거나 과업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었다. 행복한 아이는 활발하고 낙천적이며 잘 웃고, 건강하며, 친구가 많고 가족이 화목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였다. 행복한 어른은 건강하며, 친구가 많고 가정이 화목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우였다. 이는 기존 연구자들의 지적처럼(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1992; Triandis, 1995), 한국사회가 친구나 가족 등과의 대인관계를 중시하는 관계주의적 문화임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주의는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과 사회적 구조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소인데(최봉영, 1994; 최재석, 1965),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행복을 결정하는데 가족이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른바 가족주의 특성을 보여준다. 뿐만 아

니라, 한국 어른들의 행복은 그들의 직업적 성취 등 사회적 성공에 의해 좌우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은 개인에게 단지 물질적인 풍요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어른의 경우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기능할 수 있다.

이처럼 남녀에 따른 아이와 어른의 행복에 대한 기준은 바람직성에 대한 기준과 상당히 달랐다. 즉, 행복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의 속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반면, 바람직성은 사회적 요구와 규범적 당위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아동 및 어른과 개인적으로 행복한 아동 및 어른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아동과 어른에 대한 판단기준이 두 개로 구분된 이중구조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문제는 이러한 두 개의 판단기준이 각 개인에게 동일하게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행복이 개인적인 욕구충족에 더 가깝다고 한다면, 바람직성은 사회적인 요구에 훨씬 더 가깝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이 개인적 행복추구와 상충될 때, 사람들은 전자를 희생하고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기준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적어도 사회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남녀 아동과 어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매우 보편적임을 지적해 준다. 성인, 교사, 대학생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자들이 아동과 어른에 대하여 여러 차원에서 보고한 내용들은 대동소이했다. 이러한 점은 아동과 어른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가 일부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지엽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사회와 문화

의 영향에 노출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전반적인 현상임을 지적해 준다. 이는 곧 아동과 어른에 대한 사회적 표상이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이들과 관련된 현상들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가령, 아동에 대한 양육이나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추구하는 목표 가령, 사회적 기대나 요구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위한 욕구충족을 거의 절대적으로 더 우선시하는 요즘의 세태와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남녀 아동과 어른에 대한 한국인들의 사회적 표상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보고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대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발전시켜, 아동과 어른에 대한 사회적 표상에서 개인차를 측정하고, 이러한 개인차가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여러 관련 변인들, 가령 아동 양육이나 교육에 대한 태도나 인식 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과 어른에 대한 특정 사회적 표상이 실제 관련 행동과 중요한 연관성이 없다면, 사회적 표상이 갖는 중요성은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표상이 인생에서 어느 시기에 어떤 매개를 통해서 주로 형성되는지 밝히는 것도 변화를 위한 사회적 개입과 관련해서 함축하는 바가 클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영희 (1998). 한국형 성역할 검사. *아세아여성연구*, 27, 153-182.
- 김정운 (2000). *붕어빵과 아동. 문화와 사람*, 1(2), 223-246.
- 김태오 (2000). 소파의 아동관의 교육철학적 검토. *교육철학*, 18, 21-42.
- 김향은 (1995). 전통 아동교육서에 나타난 아동교육 원리. *아동학회지*, 16(2), 65-80.
- 문미옥과 류철선 (2000).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21(1), 215-236.
- 방희정 (1996). 성 고정관념: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실체. 김태련 외, *여성심리*(pp.170-211).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백경임 (1980). *블타의 재가아동관*.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병환 (1978). 여대생의 아동관 및 자녀관 조사. *여성문제연구*, 17-32.
- 신양재 (1995). 조선시대 교훈서에 나타난 아동연령 기대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6(1), 183-197.
- 신우철 (1997). 아동의 권리: 한국의 문제상황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연구*, 1(1), 85-100.
- 안동현 (1997). 부모-자녀 동반자살. *아동권리연구*, 1(2), 83-94.
- 우민정 (1996). 성역할 평등 개념에 기초한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선 (1995).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신념. *아동학회지*, 16(1), 65-78.
- 임희섭 (1980). 현대한국에 있어서의 가치지향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제 3집, pp. 185-227).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전경숙 (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 성취도 및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2), 251-272.
- 전경숙 (1996).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

- 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 회지*, 17(1), 57-75.
- 정진경 (1989). 한국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현황과 그 갈등해소 방안을 위한 조사연구.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보고서*.
- 정태연, 최상진과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8(2), 51-76.
- 조형근 (1999). 어린이기의 탄생과 근대적 가족모델. *교수신문원고*.
- 최봉영 (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 II*. 서울: 느티나무.
- 최상진 (1998). 사회적 표상이론 체계. 미발표논문.
- 최재석 (1965). *한국 가족제도사 연구*. 서울: 일지사.
- Aries, P. (1962). *Centuries of childhood*. New York: Knopf.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1992). *Cross-cultural psychology: Research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klin, B. (1986). Introduction. In B. Franklin (Ed.), *The rights of children* (pp. 1-23). New York: Basil Blackwell.
- Goldberg, L. R. (1990).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The Big 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1216-1229.
- Goodnow, J. (1985). Changes and variation in ideas about childhood and parenting. In I. 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oodnow,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 Kluckhohn, C. (1962). Values and value orientation in the theory of action. In T. Parsons & E. A. Shils (Eds.),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ew York: Harper & Row.
- Lee, J. Y. and Sugawaram A. I. (1982). Awareness of sextrait stereotypes among Korean children.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7, 161-170.
- Moscovici, S. (1981). On the social representations. In J. P. Forgas (Ed.), *Social cognition Perspectives on everyday understanding*. London: Academic Press.
- Mussen, P. H., J. C. & Kagan, J. (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4th ed. N.Y.: Harper & Row publishers.
- Nimio, A. (1979). The naive theory of infant and other maternal attitudes in two subgroups in Israel. *Child Development*, 50, 976-980.
- Parsons, T. and Bales, R. F. (1955). *Family structure and the socialization of the child,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linois free press.
- Sigel, I. E., McGillicuddy-De Lisi, A. V., & Johnson, J. E. (1980). *Parental distancing beliefs, and children's representational competence within the family context* (ETS RR-80-21).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lder, CO: Westview Press.
- Williams, J. E., Bennett, S. M. and Best, D. L. (1975). Awareness and expression of sex stereotype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35-642.

Social Representations and Gender stereotypes Held by Koreans on Children and Adults

Taeyun Jung

Won Jung Rye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Using open-ended questionnair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social representations and gender stereotypes held by Koreans on children and adults. Participants were 249 adults, 162 teachers and 265 college undergraduates. According to the results,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adults worthy of the name were based on the same personalities. However, there was a sharp contrast between child boy and girl and between man and woman, which was in accordance with general gender stereotypes. Desirable children and adults were very similar to those children and adults worthy of the name and yet gender stereotype was weakened. Happiness for both children and adults was determined mainly b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hysical health and socio-economical status.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erms of features of Korean culture and gender stereotype.

Keywords : Social Representation, Children, Adults, Gender Stereotype, Personality, Relationships and Tasks